

최근 미혼 인구의 특성과 동향: 이성교제를 중심으로

*The Unmarried Population in Korea:
Trends and Characteristics*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출산율 회복의 큰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미혼 인구이며, 그들의 향방에 따라 앞으로의 출산율 동향이 결정될 것이라는 배경 하에 최근에 조사된 미혼 인구에 대한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그들의 기본적 특성과 이성교제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성교제와 교제희망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미혼 남녀들의 교제희망 비율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방해하는 것은 남녀 모두 경제적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실제로 이성교제의 경향을 보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의 이성교제 비율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남성: 33.8%, 여성: 35.6%), 그들의 교제의향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여유를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들의 경제적 문제는 결국 고용과 연관되는 바, 앞으로 고용을 함께 연관 지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들어가며

1980년 중반이후 합계출산율은 인구대체수준(population replacement ratio)이하로 내려간 뒤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는 1.19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합계출산율의 변동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 여성의 출산행동이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합계출산율의 감소는 여성의 출산아수 감소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

지만, 우리나라처럼 결혼을 하지 않으면 출산율 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결혼과 출산이 밀접한 관련이 있고¹⁾, 결혼이 감소하면 출산도 감소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의 동향은 출산의 동향을 예측해 보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이런 출산율의 변화를 결혼에 의한 변화와 출산행동에 의한 변화로 요인 분해한 것이 <표 1>이다. 이 표는 1970년부터 2010년까지의 합계출산율 변화를 요인 분해한 것인데, 1970년부

1) '류기철, 박영화(2009). 한국여성의 출산율 변화와 출산간격 영향요인, 한국인구학, 32(1), pp.1~23'에 따르면 결혼 후 3~4년 이내에 90% 이상이 자녀를 낳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합계출산율의 변화와 요인분해(1970~2010년)

(단위: %)

기간	기수TFR	기말TFR	TFR의 차이	결혼연령 변화에 의한 차이	유배우출산율 변화에 의한 차이
1970~1995	4.53	1.65	-2.88	41.8	58.2
1995~2010	1.65	1.22	-0.43	102.2	-2.2
1970~2010	4.53	1.22	-3.31	80.9	19.1

주: 1) 기수TFR은 기간의 첫 TFR을 나타내고, 기말TFR은 기간의 마지막 TFR을 나타냄. 즉, 1970~2010년 사이의 기수TFR은 1970년, 기말TFR은 2010년을 가리킴.

2) 요인분해는 Kitagawa(1955)에 기초하여 산출된 수치임²⁾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의 자료로부터 필자 산출

터 1995년까지는 출산행동 변화에 의한 차이가 큰 반면, 1995년부터 2010년까지는 결혼연령변화에 의한 차이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결혼연령변화에 의한 차이가 출산행동 변화에 의한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결혼연령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인구의 결혼과 출산과 관련된 특성과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미혼 인구가 결혼으로 이행하는 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출산율 회복을 위한 초석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표 2>는 1990년부터 2013년까지의 초혼연령의 평균을 표시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2가지의 평균초혼연령을 볼 수 있는데, 왼쪽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초혼연령, 즉, 인구동태통계(statistics of population dynamics)를 이용하여 통계를 낸 것이고 오른쪽은 인구정태통계(statistics of population statics)를 이용하여 수치를 계산한

것이며 Singulate Mean Age at Marriage(SMAM)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왼쪽의 통계는 주민 센터에 신고 된 초혼연령을 평균한 것이기 때문에 결혼을 한 부부만이 통계에 산입된다.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은 인구들이 산입되지 않은 편향(bias)이 생긴다. 반면, SMAM은 인구센서스를 이용하여 기혼자뿐만 아니라 미혼자도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미혼 인구가 포함되지 않는 편향을 보완할 수 있다.

먼저 동태초혼연령을 보면, 1990년부터 2013년까지 초혼연령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자세히 살펴보면, 남편은 1990년의 27.8세에서 32.2세로 약 20여년동안 4.4세가 증가했고, 아내는 1990년의 24.8에서 29.6세로 4.8세가 증가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더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녀의 나이차는 최근에 약간 좁혀지긴 했지만 약 3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SMAM을 보면, 동태초혼연령보다 조금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1990년의 차이는 남

2) Kitagawa, Evelyn M.(1955). Components of A Difference between Two Rate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50, pp.1168~94.

표 2. 평균초혼연령(1990~2013년)

(단위: 세)

기간	동태초혼연령		SMAM	
	남편	아내	남성	여성
1990	27.8	24.8	28.7	25.6
1995	28.4	25.3	29.6	26.3
2000	29.3	26.5	30.9	27.5
2005	30.9	27.7	32.1	28.9
2010	31.8	28.9	33.2	30.2
2013	32.2	29.6	-	-

자료: 동태초혼연령은 혼인통계(각년도), SMAM은 1990~2005년까지는 김승권 외(2006)에서 재인용하였고³⁾, 2010년은 인구센서스 자료를 사용하여 필자가 계산

성이 0.9세, 여성이 약 0.8세였던 것에 비하여, 2010년에는 남성이 1.4세, 여성이 1.3세로 그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미혼 인구의 증가에 의한 것이라 유추할 수 있는데, 상술한 바와 같이 미혼 인구가 계산에 산입되는 SMAM의 특징에 기인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미혼 인구가 결혼으로 이행하게 되면 출산율 상승에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이고, SMAM의 감소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결혼으로 유도하는 것이 출산율 회복을 위하여 선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결혼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먼저 이성 친구(애인)와 교제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고, 서로간의 탐색이 끝난 후에 자신의 배우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면 결혼으로 연결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결혼으로 이행하기 이전의 단계, 즉 이성 교제 성향(dating preference)에 초점을 맞추고, 미혼 인구에 관한 기본적인 특성과 더불어 그들의 이성교제 동향에 대하여 분석해보기로 한다.

2. 미혼 응답자의 기본적 특성

본 절부터는 2013년 11월 25일부터 2012년 12월 23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이루어진 「결혼과 출산에 관한 국민인식조사」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기초로 미혼 인구의 기본적인 특성 및 최근의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표 3>은 본 분석에 사용된 미혼 남녀 데이터의 기본적인 특성을 나타낸 표이다. 총 미혼 인구는 1,500명으로 남성 882명, 여성 618명으로 연령은 18~49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⁴⁾. 이들

3) 김승권, 전광희, 김태현, 이성용, Hiroshi Kokima, Toru Suzuki, Ryuzaburo Sato(2006). 초저출산 국가의 출산동향과 정책대응에 대한 한일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조사 대상의 표집은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0년 인구총조사의 지역별(대도시와 기타 도시), 연령별, 경제활동 유무별 분포에 맞추어

표 3. 미혼 응답자의 기본적 특성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연령	18~19세	10.9	9.7	12.5
	20~24세	23.6	21.8	26.2
	25~29세	31.8	30.4	33.8
	30~34세	17.0	18.5	14.9
	35~39세	9.3	10.8	7.1
	40~44세	4.9	5.8	3.7
	45~49세	2.5	3.0	1.8
	합계	100.0(1,500)	100.0(882)	100.0(618)
학력 ¹⁾	고졸 이하	19.9	23.0	15.3
	초대졸	17.0	17.8	15.8
	대졸 이상	63.1	59.2	68.9
	합계	100.0(1,485)	100.0(872)	100.0(613)
학생여부	학생	34.9	35.8	33.6
	학생 아님	65.1	64.2	66.4
	합계	100.0(1,497)	100.0(881)	100.0(616)
경제활동 여부	하고 있음	60.5	63.7	55.8
	하고 있지 않음	39.5	36.3	44.2
	합계	100.0(1,500)	100.0(882)	100.0(618)
정규직 여부 ²⁾	정규직	68.4	71.9	63.3
	정규직 아님	31.6	28.1	36.7
	합계	100.0(794)	100.0(470)	100.0(324)
소득	1500만원 미만	21.0	16.8	27.9
	1500~2500만원 미만	29.9	23.4	40.7
	2500~3500만원 미만	25.9	27.9	22.6
	3500만원 이상	23.2	31.9	8.8
	합계	100.0(842)	100.0(523)	100.0(310)
근무시간	40시간 미만	13.7	10.5	18.8
	40시간	38.0	34.0	44.6
	41~50시간	28.1	31.1	23.2
	51시간 이상	20.2	24.4	13.4
	합계	100.0(907)	100.0(562)	100.0(345)

주: 1) 대졸이상에는 현재 재학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음.

2) 정규직 여부에는 자영업 및 가족 종사자를 제외하고 있음.

자료: "201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결혼과 출산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전화조사 원자료

전화 조사를 실시하였다. 데이터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이삼식, 조성호, 변수정, 차우규, 김태현, 이지혜, 박지연, 배혜원, 이선희, 임지영, 최인선, 송리라(2013).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참조.

의 전체적인 특성을 보면, 먼저 연령별로는 25~29세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20~24세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 보면, 대졸이상이 63%이고, 여기에 초대졸을 합하면 80%를 넘는다⁵⁾.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남녀모두 80%를 넘는 진학률을 나타냈었고, 이는 이런 일련의 경향이 나타난 것이라 보여지며, 최근 우리나라 젊은 코호트의 고학력화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학생인지의 여부를 보면, 학생인 미혼 인구는 전체의 약 35%를 점하고 있고, 미혼 인구 전체의 약 61%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⁶⁾.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인구 중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의 68.4%이다⁷⁾. 또한 이들의 소득분포를 보면, 1500만 원 미만이 21%, 1500~2500만 원 미만이 29.9%, 2500~3500만 원 미만이 25.9%, 3500만 원 이상이 23.2%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무시간은 많은 수의 미혼 인구가 40시간(주5일 근무일 경우 하루 8시간)이라고 응답을 했으며, 41시간~50시간이 28.1%, 51시간 이상이 20.2%로 약 반수 이상이 40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 특성들을 남녀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본 것과 그다지 큰 경향성의 차이는 없지만, 학력에서 대졸이상 남녀의 차가 약 10%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여성의 학력이 높은 것

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젊은 여성 코호트의 비율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제활동과 정규직의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각각 7.9%, 8.6%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소득 측면에서도 남성이 많은 경향이 있으며, 근무시간의 경우에도 여성보다 남성이 많은 시간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미혼 인구의 이성교제

앞 절에서는 미혼 남녀의 일반적인 특성이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절부터는 미혼 남녀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이성교제 비율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경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표 4>는 미혼 남녀의 특성별 이성교제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 이성친구가 있는 비율이 남성의 경우는 33.8%, 여성은 35.6%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8~49세 미혼 인구 10명중 3~4명만이 이성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경향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남녀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이성교제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샘플사이즈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안정적이라 할 수는 없지만, 45~49세 남성의 경우에는 3.7%, 같은 연령대의 여성은 9.1%만이 이성친구가

5) 단, 대졸 이상에는 현재 재학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음.

6) 여기서의 경제활동 참가는 지난 일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유급으로 일을 했거나, 무급 가족종사자로 18시간 일을 했을 경우를 말함.

7) 이 통계는 경제활동인구에서 고용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자영업과 가족종사자는 제외되어 있음.

표 4. 미혼 남녀의 특성별 이성교제 비율

구분		남성			여성		
		있음	없음	합계	있음	없음	합계
전체		33.8	66.2	100.0(882)	35.6	64.4	100.0(618)
연령	18~19세	18.6	81.4	100.0(86)	23.4	76.6	100.0(77)
	20~24세	29.7	70.3	100.0(192)	37.7	62.4	100.0(162)
	25~29세	45.5	54.5	100.0(268)	43.1	56.9	100.0(209)
	30~34세	38.7	61.4	100.0(163)	38.0	62.0	100.0(92)
	35~39세	27.4	72.6	100.0(95)	27.3	72.7	100.0(44)
	40~44세	25.5	74.5	100.0(51)	13.0	87.0	100.0(23)
학력	45~49세	3.7	96.3	100.0(27)	9.1	90.9	100.0(11)
	고졸 이하	22.4	77.6	100.0(201)	24.5	75.5	100.0(94)
	초대졸	36.1	63.9	100.0(155)	36.1	63.9	100.0(97)
학생여부	대졸 이상	37.2	62.8	100.0(516)	38.4	61.6	100.0(422)
	학생	30.5	69.5	100.0(566)	31.4	68.6	100.0(409)
경제활동여부	학생 아님	35.7	64.3	100.0(315)	37.9	62.1	100.0(207)
	하고 있음	37.9	62.1	100.0(562)	40.3	59.7	100.0(345)
정규직여부	하고 있지 않음	26.6	73.4	100.0(320)	29.7	70.3	100.0(273)
	정규직	38.5	61.5	100.0(338)	41.5	58.5	100.0(205)
소득	정규직 아님	36.4	63.6	100.0(132)	40.3	59.7	100.0(119)
	1500만원 미만	27.3	72.7	100.0(88)	28.1	71.9	100.0(89)
	1500~2500만원 미만	39.3	60.7	100.0(122)	44.6	55.4	100.0(130)
	2500~3500만원 미만	43.2	56.9	100.0(146)	52.8	47.2	100.0(72)
근무시간	3500만원 이상	41.3	58.7	100.0(167)	50.0	50.0	100.0(28)
	40시간 미만	33.9	66.1	100.0(59)	27.7	72.3	100.0(65)
	40시간	43.5	56.5	100.0(191)	40.9	59.1	100.0(154)
	41~50시간	37.1	62.9	100.0(175)	46.3	53.8	100.0(80)
	51시간 이상	32.9	67.2	100.0(137)	45.7	54.4	100.0(46)

주: 1) 대졸이상에는 현재 재학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음.
 2) 정규직 여부에는 자영업 및 가족 종사자를 제외하고 있음.
 자료: "201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결혼과 출산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전화조사 원자료

있다고 답하고 있다. 이들 중 이성교제 비율이 가장 큰 연령대는 남녀 모두 25~29세로 남성은 45.5%, 여성은 43.1%가 이성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 보면, 초대졸과 대졸 미혼 인구의

이성교제 비율 차이는 남성이 약 1%, 여성이 약 2%로 그다지 큰 차이가 없지만, 고졸과 초대졸 사이의 차이는 남녀 모두 약 14%로 그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생 여부 별로 이성교제 비율을 살펴보면, 학생이 아닐

경우가 학생일 경우보다 이성교제 비율이 더 크고,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더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경제활동 여부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에 이성교제 비율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고, 하고 있지 않을 때와의 차이는 남성의 경우 11.3%, 여성의 경우 10.6%로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정규직인지 아닌지에 따른 이성교제 비율은 남성이 2.1%, 여성이 1.2%로 남녀 모두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일을 하게 된 배경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지 않는 경우보다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정규직인 경우는 급여나 처우 등의 면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위의 두 요인(경제활동여부, 정규직여부)을 검토한 결과로는 경제력이 이성교제 비율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실제 개개인의 소득별로 경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소득별 이성교제 비율을 보게 되면, 소득이 높을수록 이성교제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비율이 가장 큰 소득계층은 남녀 모두 2500~3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남성은 43.2%, 여성은 52.8%이다. 반대로 가장 낮은 경우는 남녀 모두 1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남성은 27.3%, 여성은 28.1%인 것을 알 수 있고, 가장 높은 비율(2500~3500만원 미만)과 낮은 비율(1500만원 미만)의 차이를 보면, 남성의 경우 15.9%, 여성의 경우 24.7%로 여성의 차이가 남성보다 월등히 크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은 소득이 가장 높은

소득계층의 이성교제 비율이 크지 않다는 것인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앞서 연령별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령이 높을수록 이성 친구가 없는 비율이 커지기 때문에 그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이성을 만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성 친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배경으로 근무시간에 따른 이성교제 비율을 살펴보면, 먼저 남성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의 경우가 43.5%로 가장 크고, 51시간 이상의 경우가 32.9%로 가장 작다. 따라서 남성은 일반적인 인식과 같이 근무시간이 길수록 이성교제 비율이 작은 것을 알 수 있지만, 근무시간이 짧다고 해서 이성 친구가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여기서 근무시간이 적다는 것(40시간 미만)은 곧 단시간 노동(아르바이트 등)일 가능성이 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성 친구가 없는 것일 수 있다

반면 여성은 41~50시간의 경우가 46.3%로 가장 크고, 40시간 미만이 27.7%로 가장 작지만, 51시간 이상의 경우도 45.7%로 그 비율이 매우 크고, 40시간의 경우도 40.9%도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수치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여성은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근무시간이 길어도 이성교제 비율이 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아마도 경제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거라 생각된다. 즉, 경제활동을 할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이성교제 비율이 높다는 앞의 결과와 연관 지어서 생각해 보면, 근무시간이 길다는 것은 곧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

또는 소득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절대적인 근무시간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반대로 근무시간이 적을수록(40시간 미만) 이성교제 비율이 작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무시간이 적은 것은 곧 단시간 노동(아르바이트 등)일 가능성이 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성 친구가 없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여성도 남성처럼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이성교제가 활발해 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4. 미혼 인구의 이성교제 희망유무

앞 절에서는 미혼 인구 중 현재 이성교제를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를 비교해보았다. 이번 절에서는 그 중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경우 그들이 이성교제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의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표 5>는 미혼 남녀의 특성별로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은지 아닌지에 대한 의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은 의향을 나타낸 미혼 인구(현재 이성 친구가 없는 미혼 인구의 전체적 비율을 보면, 남성의 64.9%, 여성의 56.5%로 남녀 모두 이성 친구를 희망하는 비율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전 연령에 걸쳐

고르게 이성교제 희망비율이 높은 경향이 보이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의향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⁸⁾. 또한 35세를 넘어서면서 결혼 의향이 급격히 낮아지는 경향과 유사한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⁹⁾. 그 다음으로 학력별로 보면, 남녀 모두 학력별의 차이가 보이지 않고, 학생여부의 경우도 그다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다른 경향이 보인다. 먼저 경제활동여부를 보면, 남녀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이성교제 희망비율이 크지만,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와의 차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월등히 크다(남성: 11.7%, 여성: 6.6%). 또한, 정규직 여부도 경제활동과 유사한 경향이 있는데, 정규직일 경우 남녀 모두 이성교제 희망비율이 크고, 정규직이 아닐 경우와의 차이는 경제활동의 경우와는 반대로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히 크다(남성: 9.5%, 여성: 18.2%).

그리고 소득과의 관계를 보면, 남성의 경우 소득과의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여성은 소득이 높을수록 이성교제 희망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교제희망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교제 희망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소득에서 보여 지는 것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근무시간을 보면, 남녀 모두 이성교제 희망과 뚜렷한 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8) 여성의 경우 30세부터 샘플사이즈가 급격히 적어지기 때문에 수치가 안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특히 45~49세의 경우에는 1명의 변화가 10%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9) 주4)의 문헌 참조.

표 5. 미혼 남녀의 특성별 이성교제 희망유무

구분		남성			여성		
		있음	없음	합계	있음	없음	합계
		64.9	35.1	100.0(584)	56.5	43.5	100.0(398)
연령	18~19세	62.9	37.1	100.0(70)	61.0	39.0	100.0(59)
	20~24세	63.0	37.0	100.0(135)	57.4	42.6	100.0(101)
	25~29세	67.8	32.2	100.0(146)	63.0	37.0	100.0(119)
	30~34세	66.0	34.0	100.0(100)	59.7	40.4	100.0(57)
	35~39세	65.2	34.8	100.0(69)	34.4	65.6	100.0(32)
	40~44세	63.2	36.8	100.0(38)	25.0	75.0	100.0(20)
학력	45~49세	61.5	38.5	100.0(26)	60.0	40.0	100.0(10)
	고졸 이하	62.2	37.8	100.0(156)	56.3	43.7	100.0(71)
	초대졸	67.7	32.3	100.0(99)	56.5	43.6	100.0(62)
학생여부	대졸 이상	65.7	34.3	100.0(324)	56.2	43.9	100.0(260)
	학생	63.5	36.5	100.0(364)	59.2	40.9	100.0(254)
경제활동여부	학생 아님	65.7	34.3	100.0(219)	55.1	44.9	100.0(142)
	하고 있음	69.6	30.4	100.0(349)	59.7	40.3	100.0(206)
정규직여부	하고 있지 않음	57.9	42.1	100.0(235)	53.1	46.9	100.0(192)
	정규직	75.0	25.0	100.0(208)	67.5	32.5	100.0(120)
소득	정규직 아님	65.5	34.5	100.0(84)	49.3	50.7	100.0(71)
	1500만원 미만	65.6	34.4	100.0(64)	54.7	45.3	100.0(64)
	1500~2500만원 미만	71.6	28.4	100.0(74)	65.3	34.7	100.0(72)
	2500~3500만원 미만	68.7	31.3	100.0(83)	61.8	38.2	100.0(34)
근무시간	3500만원 이상	75.5	24.5	100.0(98)	50.0	50.0	100.0(14)
	40시간 미만	69.2	30.8	100.0(39)	46.8	53.2	100.0(47)
	40시간	69.4	30.6	100.0(108)	60.4	39.6	100.0(91)
	41~50시간	73.6	26.4	100.0(110)	69.8	30.2	100.0(43)
	51시간 이상	65.2	34.8	100.0(92)	64.0	36.0	100.0(25)

주 1) 대졸 이상에는 현재 재학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음.

2) 정규직 여부에는 자영업 및 가족 종사자를 제외하고 있음.

자료: "201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결혼과 출산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전화조사 원자료

5. 나가며

본 연구는 출산을 회복의 큰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미혼 인구이며, 그들의 향방에 따라 앞으로의 출산율 동향이 결정될 것이라는 배경 하

에 최근에 조사된 미혼 인구에 대한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그들의 기본적 특성과 이성 교제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18~49세의 남녀 미혼 인구 중에 이성 친구가 있는 비율이 남성의 경

우는 33.8%, 여성은 35.6%로 10명 중 3~4명만이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남녀모두 이성교제 비율이 낮았고, 학력별로는 고졸과 초대졸 사이의 차이가 남녀 모두 큰 경향을 볼 수 있었다. 경제적 요인은 이성교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남녀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에 이성 친구가 있는 비율이 높았지만, 정규직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성교제 비율이 높지는 않았다. 하지만, 소득이 높을수록 이성교제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단,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남성의 경우 그 효과가 상쇄되어 고소득일수록 이성교제 비율이 약간 낮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여가시간이 적어지고 이는 곧 이성을 만날 시간이 적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성교제 비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분석결과 남성은 이런 경향과 부합하지만 여성은 반대의 경향이 있었다. 즉, 여성은 근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성교제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근무시간이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여성에 있어서의 근무시간은 절

대적인 시간 개념보다는 경제활동 및 소득의 대리변수(proxy)라는 개념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

이성교제 희망의 분석결과는 남성의 경우 전 연령에 걸쳐 고르게 이성교제 희망비율이 높은 경향이 보이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의향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남녀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그리고 정규직일 경우에 이성교제 희망비율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성교제와 교제희망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미혼 남녀들의 교제희망 비율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방해하는 것은 역시 남녀 모두 경제적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실제로 이성교제의 경향을 보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의 이성교제 비율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남성: 33.8%, 여성: 35.6%), 그들의 교제의향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여유를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들의 경제적 문제는 결국 고용과 연관되는 바, 앞으로 고용을 함께 연관 지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경